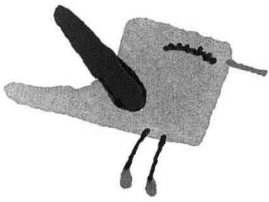


선면 언어의 최소화로 뽑어내는 최대 시너지
에둘러 말하지 않는 연애박사

그림책 작가 고미 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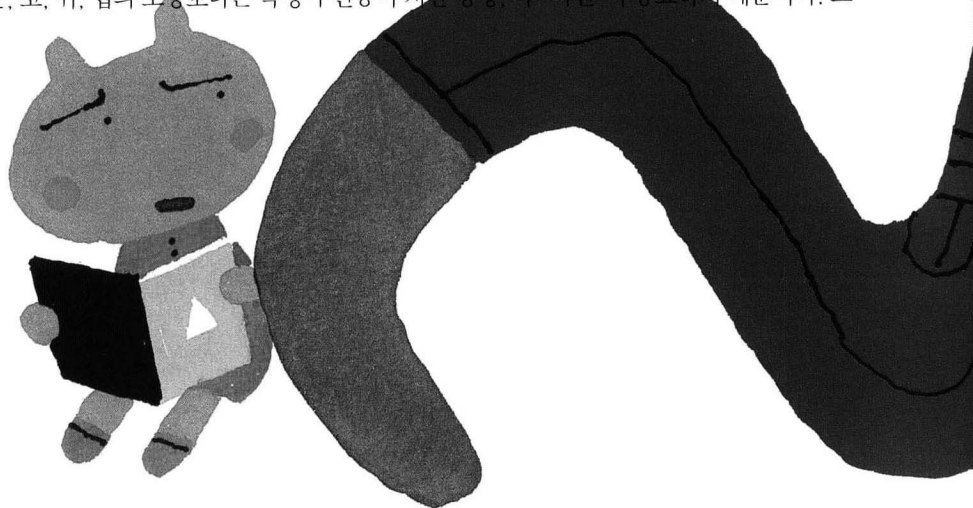
연애박사들은 의외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연애초보들은 “그런 것 같아” “그렇겠지?” 라며 자신감 없이 말끝을 흐리거나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안달하다 오히려 쓸데없는 말 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길 잘하나 박사급에 달하는 이들은 “나 너 사랑해”, “네가 보고 싶어”라고 핵심만을 말하고 돌아선다. 괜히 빙 둘러 여러 말만 늘어놓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걱정하며 앞서가는 초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재미있게도 수준급 연애박사들의 화법은 아이들의 화법과 비슷하다. “나 민수 좋아해, 민수 손 잡고 싶어” “난 보라 싫어!”라고 말하는 아이들처럼 느끼는 바를 직접적으로 가감 없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연애로 치자면 지금 소개할 고미 타로는 이미 박사급의 연애실력을 갖고 있는 그림책 작가다. 본래 그림책의 속성 중 하나가 글이 많지 않다는 것인데 고미 타로의 그림책은 다른 그림책과 비교할 때 더욱 간결하고 압축된 형태의 ‘말’만 남겨 놓는다. 그 몇 마디 말은 유려하거나 철학적이거나 이상적이고 현실적이다.

“더 놀고 싶지만 / 가지 않으면 안돼 / 깜짝 / 어떡하지 / 무서워 / 하지만 한번 해보지 / 각오는 됐어 / 아, 아파 / 너무 하잖아 / 화나도 할 수 없어 / 조금만 더 참자 / 후유 / 감사합니다, 그럼 / 싫어, 싫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 그러니까 이를 닦자. 이를 닦아.”

이 글에서 더 놀고 싶어도 각오까지 하면서 가야만 하는 곳은 ‘치과’ 이고, 감사하긴 한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치과의사’ 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고미 타로의 책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에서 고미 타로는 이처럼 악어와 치과의사가 만나는 상황을 던져놓고 두 캐릭터의 심리전을 간결한 대화로 풀어 쓴다. 허무개나 난센스같다면서 책을 덮어버리는 성급한 독자가 아니라면 “이를 닦자, 이를 닦아”가 나오는 마지막 장을 펼치기 전까지 독자들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긴장과 맞닥뜨릴 것이다. 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말을 툭툭 내던지고 그 말을 운율감 있게 받아친 고미 타로의 화법이 독자들에게 먹힌 예다. 고미 타로의 그림책은 대부분 이렇듯 단순 명료하다. 그 명료함 속에는 운율감과 리듬감이 숨어 있는데 읽는 이들은 이 규칙을 통해 심리적인 긴장을 얻거나 반전을 기대하는 등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고미 타로의 단순미는 그림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압축된 형식으로 인물과 배경을 표현하는데 주인공들은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간혹 코도 없는 경우가 많으나 고미 타로식 그림에서 그 정도 과감한 압축은 특별히 문제될 게 못 된다. 왜냐하면 고미 타로에게는, 코, 귀, 입의 모양보다는 특정 주인공이 처한 상황, 즉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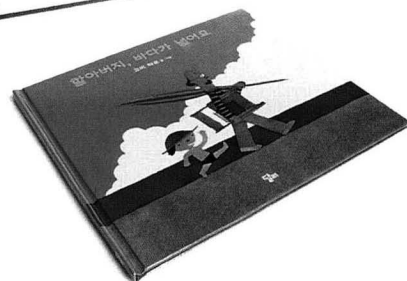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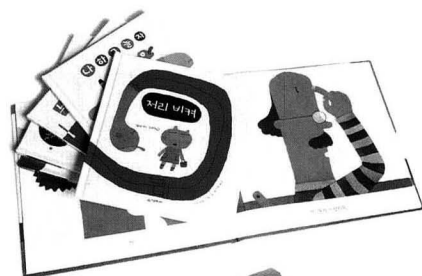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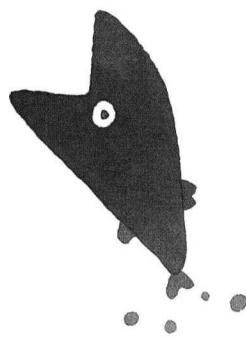


래서 그의 그림책 대부분은 한장 한장이 하나의 특별한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건의 긴장감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최근 출간된 《저리 비켜》는 그 압축미와 상황성을 잘 보여준다. 꼬리가 긴 뱀은 책을 읽을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자꾸만 주인공을 방해한다. 주인공은 울상을 지으며 “비켜 뱀아!”라고 몇 번이고 소리치지만 뱀은 시치미 뚝 떼고 방해공작을 편다. 그림은 두 주인공을 넓은 면으로 표현한다. 대부분의 화가들이 뱀을 그릴 때 살갓의 질감이나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하려 한다면 고미 타로는 지극히 단순한 형태의 구불구불한 뱀을 우리 앞에 내놓는다. 그가 아이들에게 소개하려 하는 것은 뱀의 질감이나 피부의 생김새가 아니라 구불구불하고 긴 뱀이 옆드리고, 몸을 뉘여 소파에 누운 후 텔레비전을 보고, 미끄럼틀 위에 오르고, 몸을 돌돌 말아서 수영장에서 노는 등 자신의 몸을 이용해 갖가지 상황을 연출하는 것인 까닭이다. 고미 타로의 단순 명료한 선과 형태미가 잘 표현된 책 중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있나봐》이다. 이 책은 화자가 “누군가가 있나봐”라고 말하면 오두막집이 소개되고 그 다음장에서선 오두막집에 숨어 있던 말이 “내가 있었어”라며 얼굴을 내미는 형식으로 돼 있다. 특히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특정한 공간에 어떤 형식으로 숨었는지를 상상해 보는 재미를 쏠쏠하게 제공한다.

최근 국내에 소개된 고미 타로의 책 중에는 말미에 반전과 교훈을 던져주는 책들도 여럿 발견된다. 매번 “비켜”라고 뱀을 노려보던 주인공이 비오는 날 우산이 되어주는 뱀을 보며 “비키지 마!”라고 부탁하는 《저리 비켜》는 최고로 고조됐던 긴장을 마지막 한순간에 이완시키는 반전이 압권이다. 또한 《할아버지 바다가 넓어요》에선 해변에서 외계인을 발견한 아이의 말을 도통 듣지 않고 책만 보는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작가는 할아버지가 보고 있던 책이 《우주인 연구》라는 사실을 말미에 알려주면서 주변엔 관심이 없고 이론에만 파묻혀 있는 어른들을 은근슬쩍 비판하기도 한다.

더도 덜도 없이 할 말만 간결하게 던지고 여운을 남겨놓는 고미 타로. 그는 내년에 환갑을 맞이하지만 그림책 작가로선 절대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에겐 때론 어른의 목소리가 없는 까닭이다. 그는 에둘러 말하지 않고, 뚝을 들이지도 않으며, 알 수 없게 말끝을 흐리지도 않는 스타일리스트다. 《저리 비켜》《나하고 놀자》《혼자서는 위험해》《작은 새야, 노래해》《누군가가 있나봐》 등 최근 출간된 책 제목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김정연**

김정연 기자



최근 출간된 '고미 타로 아기 그림책 시리즈 (시공주니어)와 《할아버지 바다가 넓어요》 (달리).

1945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고미 타로는 구와자와 디자인연구소에서 공업디자인을 공부했으나, 좀더 창조적이고 다양한 상상력을 시도해 보기 위해 그림책을 시작했다. 이후 단순 명료한 선과 형태의 그림과 독특한 아이디어로 어린아이들을 위한 작품을 만들면서 세계적인 일러스트 작가로 성공했다. 일본 '산케이 아동 문학상',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독일 세계우수아동도서전' 등에서 상을 받았으며, 작품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질문 그림책》《창문으로 넘어온 선물》《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저런, 벌거숭이네!!》《이게 뭘까?》《바다 건너 저쪽》 등이 있다.

